

눈길 끄는 특·특·행·정

“의자에 앉아 쉬었다 가세요”

남원시, 횡단보도에 교통약자 의자 설치

남원시는 보행 약자를 위해 주요 횡단보도에 ‘안전의자’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자는 오래 서 있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횡단보도 인근 그늘막 기둥에 설치해 햇볕과 눈·비도 피할 수 있다.

남원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향교오거리·요천변 등 시내 18개 횡단보도에 우선 설치했으며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의자가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보도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남원경찰서와 장소 등을 협의한 뒤 설치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짧은 신호 대기시간도 길게만 느껴진다”면서 “이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도 흔하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영농폐기물 대신 처리해 드려요”

군산시, 재활용 불가 폐부직포 등 처리 지원

군산시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사필름과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농민들은 영농과정에서 다양으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이 해마다 농경지에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되면서 환경오염 문제를 불러왔다.

군산시는 이를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24t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영농폐기물을 톤백 마대에 담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임시보관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서 일괄 수거해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거나 사업장 폐기물과 법인 등에서 다양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거대상에 제외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활용불가 폐기물을 적극 처리해 깨끗하



고 아릅다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미스춘향 6명, 남원 홍보대사 위촉

춘향 진 신슬기씨 “남원·춘향정신 널리 알리겠다”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미스춘향 진에 선정된 신슬기(23·서울·서울대 기약과)씨 등 입상자 6명이 지난 11일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입상자들은 신 씨를 비롯해 춘향 선 김태은(22·서울·한양대 무용학과), 미 김현지(22·경기 용인·국민대 도자공예학과), 정 이채은(24·서울·이화여대 한국음악과 졸), 숙 신지연(24·캐나다·토론토대 뉴로사이언스학과), 현 임예랑(24·부산·부산가톨릭대 간호학과 졸)씨 등이다.

이들은 제90회 춘향제 행사로 열린 춘향선발대회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미인으로 뽑혔

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남원의 관광, 문화, 농·특산품 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신씨는 “남원 특산물과 춘향의 고귀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의 자랑스러운 대표 민속문화인 춘향의 얼을 기억하며 남원을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국춘향선발대회에서 미스춘향에 선정된 입상자 6명이 남원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남원시 제공>

호남고속도 정읍~김제IC 공사
오늘부터 1개 차로씩 통행 제한

한국도로공사는 14일부터 호남고속도로 정읍나들목~김제나들목 33km 구간 개량 공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평일 양방향 각 1개 차로씩 통행을 제한한다. 단 주말은 제외다.

이번 공사는 노후화한 구간을 신설 고속도로 수준으로 전면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2년 6월 완료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해당 구간의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고, 갓길이 좁은 구간에서는 갓길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또 신형 가드레일과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방음벽·중앙분리대 등 노후 안전시설물을 교체해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도 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고래·곰돌이·은하수 형상 야간조명 설치 정읍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의 불빛 되길”

정읍시가 최근 수성동 주공아파트사거리 교통섬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야간경관은 교통섬 4곳 중 2곳에 곰 조형물과 불조명을 설치했고, 나머지 2곳에는 910㎡ 소나무숲에 은하수 조명과 4m 크기의 흰고래 조형물이 들어섰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다양한 색의 빛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푸른 바다를 연상시키는 넓게 펼쳐진 은하수 조명 위에 흰색으로 밝게 빛나며 솟구치는 고래 조형물은 경이로움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상상의 나라로 떠나는 꿈을 꾸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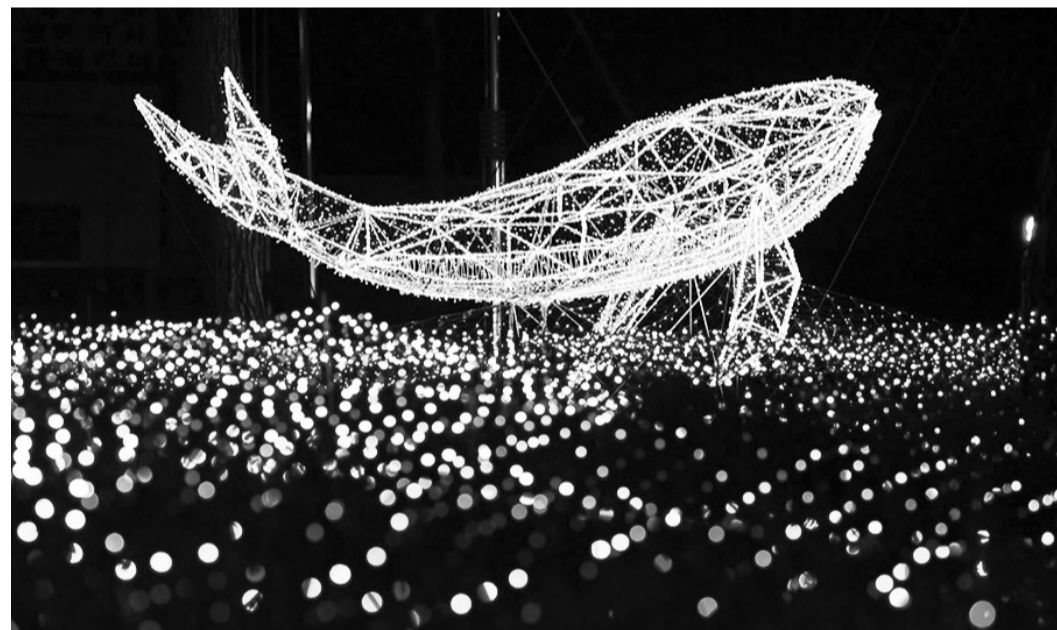
한다.

점등은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기상청 데이터를 전송받아 계절별 일몰 시간부터 오후 11시까지 자동으로 제어된다.

정읍시는 연차적으로 경관조명 대상지를 선정, 특색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화려하고 밝은 경관조명이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희망의 불빛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읍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가 수성동 주공아파트사거리 교통섬에 흰고래 조형물 등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수해 주택 재건축 무료 설계
고창건축사회 재능기부 눈길

고창지역건축사회가 수해피해로 인해 주택 재건축이 필요한 수재민들을 위해 재능기부에 나선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7-8일 집중호우로 주택 전파1동, 반파1동, 침수6동의 피해를 입었다.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도건축사협회의 협약 등이 이어졌고, 고창지역건축사회에서도 이들에게 주택무료설계에 나섰다. 현재 대신면에서 발생한 주택 전파1동에 대해 설계의뢰를 받아 설계 계획 중에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건축물 설계과 사용승인까지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약 300만원의 주택설계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